

# 잠잠하던 동남아도 코로나19 급속 확산

필리핀, 비상사태 선포  
베트남, 입국자 검역 의무화  
말레이시아 98명·태국 50명  
인니·캄보디아 확진자 발생

동남아시아에서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각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8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베트남에서 지난 6일 유럽을 여행하고 하노이공항을 통해 귀국한 베트남 여성 N(26)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7일에는 하노이에 있는 N 씨의 친척(64)과 운전기사(27)가 차례로 확진자가 됐다. 대구를 여행한 뒤 지난 4일 부산발 여객기로 귀국해 베트남 북부 팜닌성 번돈공항 근처 시설에 격리돼 있던 27세 베트남 남성도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8일에는 N 씨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입국한

61세 베트남 남성과 외국인 9명이 하노이는 물론 베트남 북부 팜닌·라오끼이성과 중부 다낭·후에시에서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다.

당국은 이들을 포함해 N 씨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승객과 승무원 217명을 추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외국인이어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온 베트남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당국은 국적을 불문하고 7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검역 신고를 하도록 했다.

지난 2일 처음으로 2명의 확진자가 나온 인도네시아에서는 6일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날 야호마다 유리안도 정부 대변인은 “첫 확진자 두 명의 밀접 접촉자 25명을 추적한 결과 4명이 인플루엔자 증세를 보여 격리 중이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1월 27일 이후 확진자가 없다고 밝혀온 캄보디아에서도 지난 7일 38세 캄보

디아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캄보디아 북서부 시엠레아프주(수)를 방문했다가 베트남 호찌민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돌아간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본인과 밀접 접촉한 8명에 포함된다.

이 일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캄보디아인 48명이 시설 또는 자가에 격리된 상태다. 이 일본인은 이에 앞서 필리핀을 다녀갔고, 태국을 경유한 것으로 알려져 각국이 접촉자를 추적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5일 이후 확진자가 없었던 필리핀에서 지난 6일 일본을 다녀온 40대 남성과 최근 외국을 방문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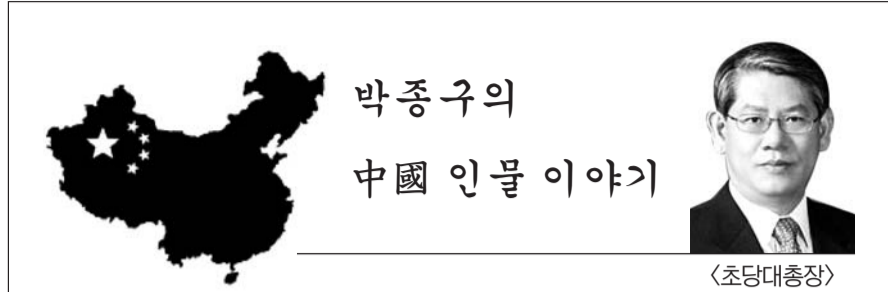
이어 7일에는 60대 남성의 아내(59)도 확진자가 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고 살바도르 파넬로 대변인이 전했다.

싱가포르에서는 7일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38명으로 늘

었다. 한 식당 만찬 행사에 참석했던 4명이 추가 확진자가 돼 이 행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1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태국도 7일 이탈리아에 출장을 다녀온 뒤 밀착 감시를 받는 6명 가운데 40세가량인 자국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태국 보건 당국은 또 지난 7일 한국에서 귀국한 근로자 88명 가운데 발열 증상을 보인 15명에 대해 추가 검사를 의뢰했고, 14일간의 격리를 피해 공항에서 잠적한 73명의 행방을 찾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6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28명이나 늘었고, 7일에도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93명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2일 나온 ‘26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면서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중국 상하이에 다녀온 26번 확진자는 카자나 국부펀드 관리직 인사이자 정부 산하 부동산 개발기업 UDA홀딩스 이사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223〉한강

한강(韓江, 1012~1088)의 자는 자화(子華)로 개봉 영구 출신이다. 인종, 영종, 신종 때 활약한 관리다. 왕안석과 함께 신법 개혁을 추진했다.

지추정사(制置正司)를 역임한 중신 한억(韓億)의 셋째 아들이다. 인종 2년(1042) 진사과에 급제해 관직에 나아갔다. 진주통판과 지성도, 직접현원을 거쳐 개봉부주판관과 호부판관을 역임했다. 한강·한유 형제는 재상 증공과 함께 신종이 왕안석을 중용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신종이 반왕으로 있을 때 기실참관(記室參軍)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신종이 그의 주장을 칭찬할 때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제 친구인 왕안석의 견해입니다”라고 말해 젊은 신종에게 왕안석의

복귀한 왕안석과 사이가 틀어져 허주지주(許州州州)로 나갔다. 신종이 죽고 나어난 철종이 즉위하자 진강군절도사와 개봉의동삼사를 지냈다. 강국공에 봉해졌고 북경유수, 사공 등을 역임했다. 1088년 세상을 떠나자 현숙(顯肅)이라는 시호가 하사되었다.

인종 황우 3년(1051) 강화와 양철 지방에 기근이 들었다. 강남동지로의 체량안무사로 파견되었다. 부임하자 창고의 곡식을 풀어 가난한 자들을 진휼하고 백성들의 절고를 살폈다. 아전의 갑질에 심해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다. 즉시 새로운 아전법을 상주해 시행하니 백성들이 편하게 여겼다. 세도가들이 땅, 개천 등을 사사roi이 점유해 약간의 세금을 내고 이익을 독식했다. 그는 주변의 농민들에게 세금을 공평히 부담시키고 개발 이익을 공유토록 조치하였다.

## 북송 정치인...왕안석과 신법 개혁 추진

존재를 깊이 각인시켰다. 신종이 병약한 영종의 태자가 되자 태자서자로 기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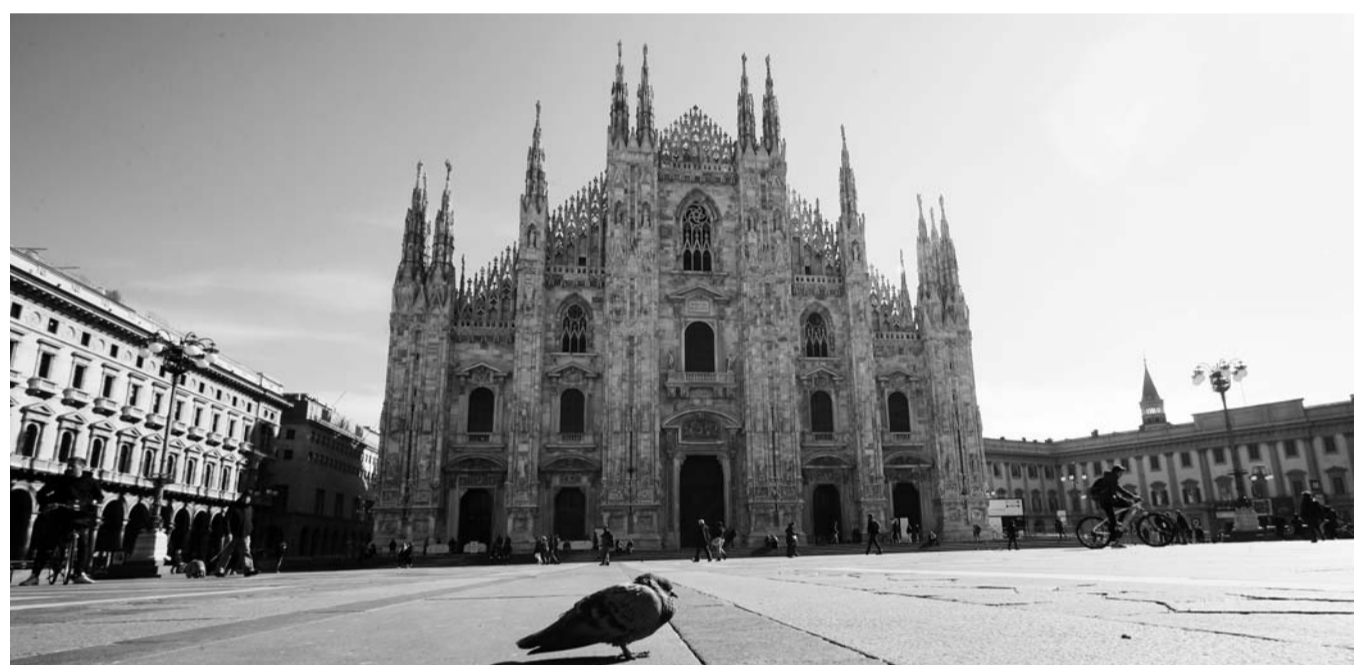
신종이 즉위하자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고 왕안석을 신법개혁의 주역으로 기용했다. 농민에 대한 저리용자를 내용으로 한 청묘법을 반대한 사마광, 여공저, 소식, 소철 등의 구법당을 교체하고 신법당을 대거 발탁했다. 한강은 왕안석의 오른팔로 부제상인 참지정사가 되었다. 희녕 3년(1070) 12월 왕안석과 함께 재상에 임명되었다. 여세를 몰아 보갑법과 고역법이 실시되었다. 지역법, 정묘법 등의 시행에 따른 귀족, 왕족, 대상인들의 반발이 격렬해졌다. 결국 1073년 청묘, 고역, 보갑 등 신법 8개항에 대한 일시중단 명이 내려졌다. 왕안석은 조정을 떠나고 자신의 후임으로 한강을 추천했다. 신법이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상황은 크게 변했다. 그는 왕안석의 제안에 대해 늘 적극 지지하는 입장으로 안건마다 지당가용(至當可用)이라고 찬성했다.

1063년 지성도부 때의 일화다. 사천 지방은 봄과 가을 사이 쌀값이 올랐다. 전임자가 쌀과 소금을 백성들에게 판매하고 증서를 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증서가 모두 부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한강은 실사를 해 7000여 호에게 새롭게 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3년마다 재산 상태를 점검해 증서를 갱신토록 하였다. 백성들이 질병을 앓으면 면역을 지급받고 가난한 자가 죽으면 직접 장사지내 주었다. 또한 지방에 파견된 환관의 상행위를 엄격히 금지토록 영종에게 상소해 시행토록 하였다.

추밀부사가 되자 신종이 국가의 재원 확보책을 하문했다. 그는 답하기를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입니다.” 재차 상소문을 올려 정부 일을 하는 차역(差役)을 개선해야 폐단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역법을 개선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1074년 왕안석의 뒤를 이어 재상이 되었다. 시행된 신법 중 문제가 있는 제도도 등용되지 못한 인재를 널리 구하도록 노력했다. 중서성에 부서를 설치해 현하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세입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도록 하였다. 사마광의 등용을 청했으나 신종은 답하기를 “내 사마광에 대해 무얼 아끼겠소이까? 그가 오히려 옳지 않은 것일 뿐이오”

1074년 왕안석의 뒤를 이어 재상이 되었다. 시행된 신법 중 문제가 있는 제도도 등용되지 못한 인재를 널리 구하도록 노력했다. 중서성에 부서를 설치해 현하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세입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도록 하였다. 사마광의 등용을 청했으나 신종은 답하기를 “내 사마광에 대해 무얼 아끼겠소이까? 그가 오히려 옳지 않은 것일 뿐이오”



당 빈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도심의 두오모(대성당) 앞 광장이 인적이 끊긴 채 텅 비어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자 이날 밀라노를 비롯한 북부 롬바르디아주 전역 등 11개 지역을 추가로 '레드존'으로 지정, 봉쇄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北, 각국 외교관 등 이송  
평양→블라디보스토크  
특별항공편 띄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외국인 이송을 위한 특별항공편을 9일(현지시간) 평양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띄웠다. 평양에서 출발한 북한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는 오전 10시 50분께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번 항공편은 평양 주재 외교관 등 외국인들을 이송하기 위한 특별편의 성격이 강하다.

최근 러시아 극동 언론 등은 고려항공이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운항할 1회 특별 항공편을 띄울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CNN 역시 현지 소식통을 인용, 독일 대사관과 프랑스 협력사무소와 스위스 개발협력소가 평양 공관을 전면 폐쇄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에서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가들도 공관 운영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CNN은 덧붙였다.

북한에는 영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8개 유럽국가들을 포함해 20여개국 대사관이 주재한다.

특별항공편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날 낮 12시 20분께 곧바로 평양으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 미국 코로나19 환자 500명 넘어서...발생지역 33개주로 확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500명을 넘겼다고 CNN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오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주·지방정부 보건당국을 인용해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512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 집계 따르면 미국 내 보건의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감염자로 판명된 환자는 모

두 442명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19명도 포함된다. 나머지 환자들은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와 코로나19의 진원지 중국 우한(武漢)에서 탈출한 미국인들 가운데 감염이 확인된 49명과 또 다른 미국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호에서 감염자로 판정된 21명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역도 워싱턴·캘리포니아·뉴욕 등 33개 주와 수도인 워

싱턴DC로 확대됐다. 코네티컷주 보건국은 이날 주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동부 뉴욕주에서는 16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환자가 총 105명으로 증가했다고 앤드루 쿠모뉴 뉴욕주지사가 이날 밝혔다.

공중보건 당국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가 '억제' 단계에서 '완화' 단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061)322-6183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